

발레 관객 이해를 위한 대안적 접근과 개념틀 고찰 : '서사적 접근'과 '댄스 리터러시'

권선영* 고양연구원

초록 발레 관객 연구는 그동안 주로 인구통계학적, 사회심리적, 행동적 접근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대규모 관객 집단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공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가 부분적인 또는 특정한 발레 관객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관객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보완할 대안으로서 '서사적 접근'과 '댄스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서사적 접근은 관객의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삶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며, 댄스 리터러시는 관객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경험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도는 발레 관객을 단순한 공연의 소비자 집단 또는 동질적인 군중으로 보지 않고,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발레 관람 및 감상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능동적이고 개별적인 주체로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돕는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발레 관객 연구가 공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용적 목적을 넘어, 관객 그 자체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요어 : 무용 관객, 발레 관객, 발레 공연, 발레 관람, 서사적 접근, 댄스 리터러시

I. 서론

한국에서 발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연말 발레 공연 '호두까기 인형'의 대매 전석 매진 소식과, 최근 TV에서 방영된 발레리노를 포함한 남성 무용수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인기¹⁾ 등은 이를 실감케 한다. 게다가, 취미 발레이지만 연습과 훈련에 매진하는 준 전문가들의 수도 상당하여, 취미 발레인들이 출전할 수 있는 발레 콩쿠르(경연대회) 및 축제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²⁾.

발레를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닌, '입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발레코어룩'³⁾이라는 새로운 패션트렌드의 등장과 함께 유명 브랜드들이 발레복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들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일부 유명 연예인들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패션을 수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중이 즐기는 발레의 요소들이 공연장을 넘어, 미디어, 일상

* 고양연구원 행정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ksy@goyang.re.kr)

1) CJ ENM에서 제작하여 방영(2024.09.24.~2024.11.26.)된 '스테이지 파이터(Stage Fighter)'는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총 3개의 장르의 남성 무용수들이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임. '2049 남녀 시청률 중편+유료 동시간대 1위를 차지', '티빙(TVING) 등 OTT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시청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음.
2) 김간지 <무용과오페라>의 '대한민국 무용콩쿠르'(2015), <와이즈발레단>의 '발레메이트페스티벌'(2018), <부산발레시어터>의 '부산발레페스티벌'과 <한국프로발레협회>의 'K-Proba'(2019), <한국발레협회>의 'D-플레이그라운드'와 <국제발레아카데미협회>의 'IBAA 대한민국 전국무용콩쿠르'(2022), 발레 학원 연합인 <설레발레>의 '설레발레페스티벌'(2023) 등이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음(괄호 안 연도는 최초 개최 연도임).
3) 발레 연습복이 현대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발레 코어룩'이라는 새로운 용어 등장함. 이는 '발레'와 '놈코어(normcore)'를 합친 합성어로 일상복에 발레복을 접목시켜 일상복과 발레복의 경계를 없앤 스타일을 의미함(박지연, 2024). '놈코어'는 평범을 뜻하는 노멀(normal)과 철저함을 뜻하는 하드코어(hardcore)의 합성어로,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옷차림을 특징으로 하는 유니섹스 패션 트렌드임.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는 만큼, 대중이 발레문화를 경험, 수용, 향유하는 방식들은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관람’이라는 행위는 대중들이 발레를 즐기고 발레를 경험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통계인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⁴⁾에서는 문화예술 향유 방식을 ‘문화예술행사 관람’, ‘문화예술행사 참여’,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주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 중 ‘관람’ 영역은 가장 서두에서, 가장 많은 문항을 포함한다. 어떤 장르를 보았는지, 한 해 동안 몇 번을 보았는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았는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향후 관람을 희망하는 장르는 무엇인지 등 ‘관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는다. 이에 비해, ‘참여’나 ‘교육’ 영역에서의 문항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고 구체적이지 않은 편이다. ‘관람’ 영역의 조사결과를 우리나라 국민이 문화예술을 얼마나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지표로서 활용된다.

‘관람’과 ‘관객’을 주요 주제로 하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용 분야에서 관객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백정희(1999)의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주요 주제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초기인 2000년대에는 주로 무용 공연 시장의 활성화와 잠재 관객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박재홍(2007) 및 최윤영(2008)은 발레 관객 특성 및 성향을 분석하여 잠재 관객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용관, 장구보(2012)는 공연관람객의 구조 비교를 통해 관객 개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수의 관객 집단을 효율적으로 세분화하고자 했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무용 분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연예술 분야 초기 관객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다(손혜진, 2024).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구의 초점은 ‘관객 심리 및 경험’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공감(구희영, 2015; 김가은, 홍미성, 2020), 몰입(김성용, 민현주, 2010; 김현남, 2008), 감동(조기숙, 차경천, 2011), 공연에 대한 인식(김현숙, 2013) 등 관객의 인지 및 심리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객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박선희, 2023; 정다운 외, 2022), 2000년대의 연구들과 달리 관객 내면의 요소들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0년을 전후하여 무용 분야 관객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주제는 ‘마케팅 전략’이다. 마케팅 전략 관련 연구들은 이전에도 관객 개발 연구와 함께 수행되어 왔으나, 과거에는 주로 오프라인 공연 활성화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관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연화, 윤수미, 2019; 김주희, 2024; 김한나, 주수광, 2019; 임선영, 2022; 조원석, 2022)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상기의 연구들은 발레를 포함한 전체 무용 분야에서 관객 특성과 행동의 이해를 통해 무용공연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논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 연구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다. 관객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어 ‘분석’의 방식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쪼개어서 풀어낸다”(分析)는 말뜻이 시사하듯, 현상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낱말로 구분하여서 각각의 특징들을 파악한 후 그것들을 다시 종합하여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과학적 탐구 방식이다(최의창,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서두에서 언급한 발레를 즐기는 사람들의 증가와 즐기는 방식의 다양화 현상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발레를 즐기는 다양한 주체들 중 하나인 발레 관객에게서 ‘보는 행위’만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을 통해 이들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한가이다. 두 번째는, 발레 관객 연구가 공연 시장 활성화라는 실용적 목적에만 국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4) 국민의 문화 활동 향유 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며, 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경로와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레 관객 연구에서 기존의 지배적 탐구방식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발레 관객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갖는 한계점은 무엇인지 고찰한다(2장). 그리고 사고방식의 두 가지 차원에 관한 Bruner의 논의를 살펴본 후,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접근의 가능성을 찾는다(3장). 그리고 이 대안적 접근을 바탕으로 발레 관객에 대한 이해를 개념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4장).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발레 관객을 개념을 '보는 사람'에 제한하여 이해하는 접근이 아닌, '발레를 즐기는 사람' 그 자체로서 이해하는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II. 발레 관객 이해를 위한 지배적 접근들

'관객(觀客)'은 보는 사람들, 혹은 보는 손님을 뜻한다. 운동 경기, 공연, 영화 따위를 보거나 듣는 사람을 지칭하며, '구경하는 사람', '구경꾼'이라는 의미로도 정의된다(표준국어대사전, 2024). 이러한 정의는 관객을 '보는 사람'에 한정하는 듯 하지만, 20세기 이후 현대 이론에서 관객은 점차 의미를 해석하고 공동 창조하는 능동적인 참여자 혹은 소비자로 인식되며 공연에서의 주요 주체로 여겨진다(박성연, 2021; Abercrombie & Longhurst, 1998). 이러한 관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관객을 연구하고 있다.

먼저,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기준으로 관객을 구분하고 이해하려 시도하는 연구들이다. 이것은 관객 연구에서 수행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식이다. 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직업 등 관찰 가능한 특성을 조사 및 분석하는데, 이 방법은 관람객 만족도 조사와 같은 기초 통계자료 수집과 분석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두 번째는, 가치관, 태도, 관심사, 라이프스타일, 성격 특성과 같은 관객의 심리적 속성을 분석 및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심리적(socio-psychological) 접근 방식이다(임승희, 2014).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관객의 내적인 경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손혜진, 2024). 세 번째는, 관람 빈도, 충성도, 구매 패턴, 선호도, 참여 수준과 같은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관객을 설명하고자 하는 행동적(behavioral) 접근 방식이다. 사회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관객 이해를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방법이다.

발레 분야에서의 관객 연구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관객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아래 표 1 참고).

표 1. 관객 연구에서의 접근들과 발레 분야 연구들

기준	주요 내용 및 특성	발레 분야에서의 관객 연구
인구통계학적 (demographic)	- 연령, 성별, 소득, 교육 수준, 직업 등 관찰 가능한 특성을 기준으로 관객을 분류 - 관객 유형 분류에 관한 초기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	- 예술경영지원센터(2010). 2010 클래식 음악·발레 관람객 조사 보고서 - 국립발레단(2024). 2024 국립발레단 관객 만족도 조사
사회심리학적 (socio- psychological)	- 가치관, 태도, 관심사, 라이프스타일, 태도, 성격 특성, 동기 및 추구혜택 등 관객의 심리적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 - 인구통계학적 요인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관객의 내적, 심층적 이해를 파악	- 구희영(2015). 관객은 왜 감동하는가?: 발레공연 중심으로 - 박현선(2017). 발레 작품에서 의상 핏이 관객의 작품기억, 의상 이미지, 시선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행동적 (behavioral)	- 공연 관람(참여) 빈도, 충성도, 구매 패턴, 선호도, 참여 수준과 같은 관객의 행동요	- 박재홍(2007). 발레 관객 특성 이해를 통한 잠재관객 확대 방안

기준	주요 내용 및 특성	발레 분야에서의 관객 연구
	<p>인</p> <p>으로 분류</p> <p>-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유형 분류하여, 공연 예술 공급자나 단체가 다양한 관객층의 요구와 기대에 더 잘 부합하도록 공연을 맞춤형화하는 데 유용</p>	<p>- 장용조(2015). "예술가로서의 관객" 참여문화 조성 연구: PNB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과 발레학교 사례를 중심으로.</p> <p>- 전수진, 최소빈(2020). 한국형 발레의 작품가치가 관람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p> <p>- 나보리, 금현섭(2022). 발레공연의 만족과 충성도 연구 - 작품과 단체에 대한 충성을 중심으로</p> <p>- 이은희(2005). 공연예술교육프로그램이 관객참여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를 중심으로</p>

먼저,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발레 관객을 이해하고자 한 사례에는 국내 주요 발레단의 관객 만족도 조사(국립발레단, 2024)나 국가 차원에서 수행한 예술경영지원센터(2010)의 <2010 클래식 음악·발레 관람객조사 보고서>가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자나 조사원이 공연장에 방문하여 관람을 마친 관객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기본적인 문항과 함께, 공연만족도, 선호 발레 레퍼토리, 공연 정보 획득 경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대규모 관객 집단을 효율적으로 세분화하여 전체적인 특성을 한눈에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발레단 및 공연장, 정책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얻은 분석 자료를 공연 기획이나 공연 지원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한다.

두 번째, 사회심리학적 접근 방식으로 발레 관객을 이해하고자 한 사례에는 관객의 '공감'이라는 심리적 경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한 구희영(2015)과 발레 의상이 관객의 작품 기억, 이미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현선(2017)의 연구가 해당한다. 두 연구 모두 관객의 심리적 속성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만, 전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후자는 양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연구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 번째, 행동적 접근 방식을 채택한 연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박재홍(2007)은 발레 관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공연 관람 빈도, 티켓 구매 패턴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잠재 관객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수진·최소빈(2020)과 나보리·금현섭(2022)은 발레 관객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은희(2005)와 장용조(2015)는 모두 관객의 '참여'라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발레 단체의 공연 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만족도, 충성도, 참여도 등의 관객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양적연구, 사례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들 연구에는 공통점이 있다. 발레 관객을 하나의 군중으로 바라보고 그 군중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이나 경험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객의 동질성에 주목한 것이다. 발레 관객이 갖는 동질성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다른 무용 장르나, 넓게는 다른 공연예술 장르의 관객과 발레 관객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나게 해준다. 우리나라에서 발레를 보는 관객은 연간, 적게는 33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 이상으로 집계⁵⁾되는데, 이 집단을 공통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집단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 집단 내부적으로 갖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발레 관객으로 불리는 '발레는 보는 사람' 각각의 개인은, 예를 들어, 발레 관람 시간의 전중후 과정에서의 경험, 공연장에까지 오게 된 이유, 관객으로서의 나와 일상에서의 나, 발레를 보는 것의 의미, 발레는 즐기는 나의 생각,

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연예술보고서」(2014~2023)에 따르면, 연간 발레 관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연도를 제외하면) 약 35만 명 내외로 나타남(2013년 434,469명, 2014년 510,344, 2015년 376,255명, 2016년 358,447명, 2017년 330,484명, 2018년 347,503명, 2019년 370,216명, 2020년 49,829, 2021년 174,215명).

몸, 감정의 변화 등 '발레를 본다'는 행위를 둘러싼 수많은 경험과 생각, 감정들이 혼합되어 있는 개별적 주체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관객을 특정 시점에서 관찰하거나, 한정된 맥락 내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 발레 관객의 고유한 특성과 심층적 이해가 제한되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의 근본적인 이유는 위의 다수 연구들이 통계 기반의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관객 이해에 천착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통계 기반의 과학적 접근은 다수의 연구 대상자의 행위와 경험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는 데 용이하여, 대다수 관객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지만 발레 관객의 복합적이고 독특한 경험과 행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기에는 부족하다.

발레 관객의 심리적, 행동적 경험들은 모두 주관적인 것으로서, 각각의 개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삶에 의미화된다. 같은 '만족도', '선호도'라고 할 지라도 그 이유와 그것이 발레 관객 각각의 개인의 삶에 의미하는 바는 모두 다르다. 발레 관객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발레 관객이 갖는 개별성, 주관성에 대한 이해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발레 관객 연구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객의 다양한 경험에 얽힌 개인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삶에 의미화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탐구할 수 있는 접근과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발레 관객 연구에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접근 방식과 차별성을 지닌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에 영역을 넓혀 무용을 포함하는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유사 사례들을 통해 지배적 관점들과의 차이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Andreassen(1998)은 '공연예술 채택 과정(Performing Arts Adoption Process)' 모델을 제시하며 관객의 진화적이고 계층적인 특성에 중점을 둔다. 공연예술에 무관심했던 소비자가 경험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6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충성도 높은 공연예술 관객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며, 단계가 발전함에 따라 관객이 요구하는 내용과 기대 또한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 모델은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관객의 형태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강다빈, 류승완, 2023), 이를 기반으로 관객 개발에 있어 단계별로 전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모델로 평가되기도 한다(서정환, 2023). 그러나, Andreassen의 모델에서는 여전히 참여 빈도와 참여 욕구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관객을 분류 및 계층화하고 있어 관객의 복합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정철현, 황소하, 2010). 동일한 비관람 계층이라도 관람 욕구는 높으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관람하지 못하는 사람과, 관람 욕구 자체가 없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는데, 이를 이 모델을 기반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모델은 관람 경험이 전혀 없는 잠재 관객에서 관람 빈도가 1~2회로 증가하는 초기 진입 단계의 관객의 설명에는 유용하나, 공연예술을 정기적으로 관람하고, 이를 일상화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성숙한 관객의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관객이 고빈도 관람자로, 성숙한 관람자로 성장하는 양상은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형태처럼 순차적이거나 선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모델이 특정 유형의 관객 이해와 개발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관객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모두 포괄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이다.

Modreanu(2017)의 연구는 관객을 단일한 유형으로 고정하지 않고 중복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관객의 다층성과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동시대 예술의 관객을 크게 '영향을 주는 자'와 '영향을 받는 자'(influencer and influenced)로 관객을 구분하고, 특히 '영향을 주는 자'로서의 관객을 '예술작품이나 공연이 재현되는 방식', '전시 및 공연의 장소', '예술을 바라보는 개인적 이해'를 기준으로 총 여섯 개의 세부 범주로 분류한다. 이 여섯 개의 범주는 사회화된 관객, 시민 관객, 문화물의 관객, 정치화된 관객, 무의식적 관객, 잠재적 관객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중첩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모드리야누의 이러한 분류 방식은 관객을 사회적 맥락에서 관찰하며 다양성과 다층성을 지닌 사회적 행위자로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관객 경험의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관객 개인의 내면적 경험이나 관객

으로서의 발달적(developmental) 경험을 동반한 심층적이고 총체적 이해를 다루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무용 분야에서도 새롭게 관객 이해를 시도한 연구 사례가 있다. Andersson(2017)는 그의 저서 「무용 이후의 무용(Post-Dance)」을 통해 관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무용 관객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일반적 관객(almost audience)’이다. 이들은 무용공연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고, 특정한 기대나 편견이 없는 관객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공연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깊은 분석보다는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감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 ‘전문적 관객(professional audience)’이다. 이들은 많은 무용 작품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감각을 얻으려는 의도가 강한 관객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무용 형식에 대해 개방적이며, 공연을 통해 자신의 감상 경험을 확장하려고 노력한다. 전문적 관객은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심층적 의미와 연결을 탐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한다. 셋째, ‘보수적 관객(dance defender)’⁶⁾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무용 형식을 옹호하며, 자신이 선호하는 무용 스타일에 강한 애착을 보인다. 공연에 대해 가장 폐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만큼 자신이 지지하는 장르에 대한 열정이 큰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Andersson(2017)의 연구는 단순히 관람 횟수나 인구통계적 특성에 의존하지 않고, 관객의 무용에 대한 태도와 참여 방식을 보다 연결성을 지닌 단계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여전히 관객의 행위를 단순히 ‘관람’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은 무용 관객의 경험이 그들의 일상과 삶에서는 동떨어진, 분절된 무엇인가처럼 보이게 한다.

정리하면, 관객 이해를 위한 기존의 접근 방식, 즉, 단일한 기준, 경로, 방식에 의존하는 과학적 접근 방식에서의 연구는 물론, 관객의 진화적 성격과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관객에 대한 이해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관객의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특히, 발레 분야에서는 과학적 접근 방식 외의 다른 접근에서의 연구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만큼, 발레 관객의 경험을 둘러싼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더욱 요청된다. 발레 관객으로서의 경험이 그들의 삶의 내부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등 삶과 함께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기존의 접근 방식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시도로서 발레 관객 연구에서의 ‘서사적 접근’을 제안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발레 관객 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개념틀로서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발레 관객에 대한 이해를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6) 윤지현(2022)은 이 세 집단을 ‘대다수 관객(almost audience)’, ‘전문적 관객(professional audience)’, ‘무용의 수호자(dance defender)’로 번역하였다. 이 중 ‘dance defender’ 집단은 무용에서 변화 보다는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특성을 지니는데, ‘무용의 수호자’라는 윤지현의 번역은 이를 중립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수호자’라는 단어는 본래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래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보수적 관객’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시도함.

IV. 발레 관객 이해를 위한 새로운 접근과 개념들 : '서사적 접근(narrative approach)'과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

1. 발레 관객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서사적 접근(narrative approach)'

발레 관객 이해에서의 서사적 접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서사적'이라는 표현은 Bruner(1986, 1996)의 이론에서 차용된 것으로, 두 가지 사고 양식, 명제적(paradigmatic mode of thought) 사고와 서사적(narrative mode of thought) 사고의 구분에서 비롯한다(최의창, 2011). Bruner(1986:12)는 명제적 사고를 “형식적이고 수학적인 기술과 설명 체계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일반화된 원리들을 다루며 그 원인들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경험적 진리를 시험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된다. 이 과정은 모두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하며,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는다(김만희, 김범기, 2002).

반면, 서사적 사고는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의 형태로 정리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사고 양식으로, 인간의 삶에서 겪는 구체적 사례의 의미와 개연성을 중시한다(Bruner, 1986). 명제적 사고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좋은 이론, 치밀한 분석, 논리적 증거, 탄탄한 논증, 그리고 합리적인 가설을 통한 경험적 발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서사적 사고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좋은 스토리, 가슴 뭉클한 드라마, 사실 같은 역사적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서사적 사고방식은 객관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그런 원리가 각자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체험되는 구체적 사례를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의창, 2011:359).

Bruner(1986)는 이 두 가지 사고의 양식이 그 성격상 서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각각은 모두 경험을 체계화하는 독특한 방식을 지니고 있어 한 양식이 다른 양식에 환원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하나만 인정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인간 사고의 풍부하고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지 못하기에 이 둘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Bruner, 1986:11).

이러한 Bruner의 개념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발레 관객을 이해하고자 했던 기존의 접근 방식들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는 명제적 사고 방식과 서사적 사고 방식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추구하기 보다는 주로 명제적 사고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찰가능한 형태로 측정하여 통계라는 기술(technical)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기술(description)을 하려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은 관객의 복잡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관객을 단순히 수량화하거나 외형적인 특성으로 이해하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Bruner가 강조한 “인간 사고의 풍부하고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명제적 사고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서사적 사고 방식을 포함한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서사적 사고 방식(narrative approach)을 기반으로 하는 최근의 몇 가지 유사 연구 사례들을 통해 발레 관객 연구에의 서사적 접근의 적용 가능성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진주성(2023)은 발레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발레 애호가’로 정의하고, 이들이 발레를 향유하는 방식을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탐색한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발레 애호가’인 만큼 발레를 ‘하는 것’ 못지 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레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 공연장에서 관람하는 것은 물론이고(해외의 발레 공연도 찾아 가는 정도),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발레를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보는 행위는 감상 외에도 ‘정보의 습득’, ‘경험에 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온라인 발레 콘텐츠의 시청이 상당히 적극적인 형태의 경험으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

들의 발레를 즐기는 이 모든 경험은 발레를 더욱 더 '잘' 즐기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이 되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점차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연구자는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며 자기 성장과 더 넓은 세계 인식, 그리고 행복한 삶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밝혀내고 있다.

최지수, 이의재(2020)는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통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발레를 배우게 되었는지(참여 계기), 참여에의 어려움, 발레 경험을 통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뿐 아니라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각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발레 참여 경험에는 발레 공연 관람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발레 공연 관람이 발레 참여에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발레 지식과 함께 삶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함께 넓혀 가는 경험임을 이야기한다. 대규모 관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경험을 공통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객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험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이다. 참여, 관람 등의 경험이 '공연 시장 활성화'와 같은 외부 상황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원인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집중함으로써 그 경험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비슷하게 이진희 외(2020)의 연구 또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발레 경험의 삶에서의 의미를 탐색한다. 이 연구에서는 Stebbins(1992)의 '진지한 여가' 개념을 중심으로 성인 발레 참여자들의 경험이 그들의 삶의 질의 맥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탐색한 결과, '발레'가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일부'로서 의미화되며, 구체적으로는 '발레의 일상화', '중독',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과학적, 분석적 사고 양식에서는 파악되지 않거나 간과되기 쉬운 감성적, 주관적, 체험적 차원이다. 과학적 접근에서 '주관성'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측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경험에는 분명히 주관적 차원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과학적 언어와 기법을 통해서는 파악해 내기가 어려우며 이를 위한 서사적 언어가 필요하다.

상기의 연구들(진주성, 2023; 최지수, 이의재, 2020; 이진희 외, 2020)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그 이야기들은 개인의 신체, 정서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그 경험의 의미 등을 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그들이 경험이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의 결론에 다다른다. 발레 경험을 삶에서 동떨어진 별개의 경험으로 분리하여 않고, 개인과 사회, 그리고 삶이라는 총체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경험인지를 서술함으로써 발레 경험의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돕는다.

아직까지 발레 관객 연구에서 '이야기'를 통해 발레 관객의 경험을 본질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지 않았다. 구희영(2015) 등 관객의 '감동'이라는 심리적 경험 일부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한 사례는 있지만, 관객 경험의 총체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관객 경험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무엇으로 나아가는지, 무슨 의미를 지니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경험한 것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 서사적 접근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과학적 접근 방식을 밀어내고 대체 하자는 것이 아니다. Bruner가 설명하였듯 이 두 가지 접근은 서로 환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발레 관객 연구에서 그간 간과해왔던 서사적 접근 방식의 적용을 통해 발레 관객과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보다 온전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레 관객은 공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석 대상으로서 여겨지는 것에서 나아가 발레 관객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연구 대상으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객 경험의 다층적 이해를 위한 개념틀로서의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

이상은 발레 관객 연구에서 서사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다. 이 논의를 실제 연구에 적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본 장의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서사적 접근 방식에서 '이야기'는 중요한

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종합하여, 해석하고, 공유를 위해 글로 작성함에 있어서 경험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상기의 연구에서 진주성(2023)은 '무용 소양'(최의창, 2011) 개념을 토대로 발레 애호가들의 경험을 해석하고 서술하고 있고, 이진희 외(2020)는 '진지한 여가'(Stebbins, 1992)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구자들이 발레 경험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어 유용한 개념들이 많이 존재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댄스 리터러시' 개념이 서사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 연구에서의 유용한 개념틀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라는 개념은 Bucek(1998)의 연구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초기의 댄스 리터러시는 무용기록법의 하나인 '모티프 라이팅(motif writing)'을 활용한 무용 수업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강조한 개념이었다. 이 후 뉴질랜드 예술교육자인 Tina Hong(2000)은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텍스트로서의 무용을 읽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Bureck의 기술적 정의를 넘어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적 틀을 체계적으로 확장시킨다.

이러한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것은 Dils의 연구들(2007a, 2007b)에서였다. Dils는 댄스 리터러시를 음악과 같은 청각적 요소와 의상, 무대, 영상 등과 같은 시각적 요소, 그리고 움직이는 몸으로부터 전달되는 다층적인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무용수에게 있어서는 (이미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능성이 가득 찬)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만들거나 털어내는 일, 관객에게 있어서는 무대와 멀리 떨어진 관객석에 앉아 있더라도 무대 위의 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면서 동시에 몰입하게 되는 일들이 댄스 리터러시와 관계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관객과 관련하여서도 Dils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감상하는 관객(an appreciative viewer)은 무용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 그러나, 리터러시를 갖춘 관객(a literate viewer)은 무용에 대한 지식 획득은 물론, 운동감각적, 은유적, 안무적, 비평적, 역사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과 감각들을 획득한다." (Dils, 2007a:570)

즉, 무용 관객의 댄스 리터러시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무용을 경험하게 하는 지적, 기술적, 감각적인 능력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 후 여러 연구들에서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은 보다 정련되는데, Jones(2014)는 '삶의 내러티브를 읽고 쓰는 행위'로, Leyva(2015)는 '춤의 창작과 분석을 수행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Jussliin(2019)은 비판적 이론의 관점에서 '춤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읽고 쓰는 능력'으로, Nurharini et al. (2019)은 '춤을 매개로 자신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 설명한다. 종합해 보면, 초기의 댄스 리터러시 개념은 무용을 기록하거나 해석하는 기술적 접근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문화적, 사회적, 비판적, 해석적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능력은 통합적이고 맥락적이며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댄스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2005)과 같은 정책적 동인에 의해 등장 및 촉진되었다는 견해가 있다(민현주, 2022; 임수진, 2015). 우리 무용현실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아직 학문적으로 개념이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민현주, 20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이 발간한 '무용교육 표준개발 연구'에서 댄스 리터러시 개념을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로 명시한 것이 국내 학문적 논의의 기점이 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타당하지만 전적으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 정책적 환경 변화와 함께 댄스 리터러시 연구가 촉진되고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개념이 정책적 동인에 의해 전적으로 새롭게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댄스 리터러시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학문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개념의 이론적 토대는 Whitehead(2001)가 제시한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라는 개념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피지컬 리터러시는 1930년대에 처음 등장했으며, 당시에는 언어 문해력(language literacy)과의 비교를 위한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Jurbala, 2015). 이후 급속한 산업 기계화로 신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개념이 확산되었고, Whitehead는 1993년 피지컬 리터러시를 이론적 근거로 처음 제시하며 신체(또는 체육) 교육에서의 주요 개념으로 확장시켰다. 나아가 2000년대 초반에는 이 개념을 더욱 확장하고 정교화하여 체계적인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Jurbala, 2015; Whitehead, 2010). 피지컬 리터러시의 개념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가 피지컬 리터러시를 새롭게 접근하는 사람으로부터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시되었는데, 지금까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해되는 피지컬 리터러시의 핵심 속성은 “평생에 걸쳐”, “동기(의욕)”, “신체적 역량”, “지식 및 이해”에 있다(민형식, 2020).

이러한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의 개념은 2010년, 국내 교육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어 제안된다. 최의창(2018)은 피지컬 리터러시가 내포하고 있는 ‘전인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이를 ‘스포츠 리터러시(sport literacy)’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체육 활동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전인적 성장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적 개념으로, 스포츠 리터러시를 제시한 것이다(민형식, 2020). 이러한 피지컬 리터러시를 국내 상황에 맞게 스포츠 리터러시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체육 분야와 교육적 영역에서 밀접하게 연관된 무용 분야에서도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 개념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즉, 정책적 환경뿐만 아니라, 리터러시의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 그리고 스포츠 리터러시 개념의 발전이라는 학문적 배경이 상호작용하며 현재와 같은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 논의의 기틀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국내 연구의 축적이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댄스 리터러시(dance literacy)는 Whitehead(2010)의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와 최의창(2018)의 스포츠 리터러시(sport literacy)에서 이어진 개념인 만큼, 학문적 배경과 기본적인 핵심 속성을 공유한다. 특히, 피지컬 리터러시와 스포츠 리터러시가 신체적 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과 경험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였듯이, 댄스 리터러시 역시 이러한 통합적 속성을 갖는 개념이다. 통합적 속성을 추구하는 댄스 리터러시의 개념은 관객의 무용 작품 감상 과정과 그 경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더하는 한 가지 유용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댄스 리터러시 개념을 통해 파악된 관객 경험의 총체는 어떠한 모습일까.

댄스 리터러시 개념을 활용한 무용 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또는 교육방법(최의창, 2011; 임수진, 2015; 김연재, 2023; 정재임, 2019)으로서의 적용이나 교육자의 전문성 요소(홍애령, 2015)로서의 적용 사례가 다수를 이룬다. 무용 학습자나 참여자의 경험을 댄스 리터러시 개념을 기반으로 이해하고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최의창(2011)이 제시한 무용소양(dance literacy)의 핵심요소(7)를 바탕으로 무용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는 연구들(이지설, 2023; 진주성, 2023)이 등장하였는데, 이들 연구는 댄스 리터러시 개념이 관객 연구에도 유용한 개념들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진주성(2023)은 발레 애호가들이 무용을 즐기는 방식이 하기, 보기, 읽기, 듣기, 생각하기, 쓰기, 그리기, 모으기, 나누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밝히고, 이러한 방식들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의미화되는지 탐색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발레 관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관객의 이야기를 통해 발레 공

7) 최의창(2011)은 무용소양의 핵심 요소로서 무용능(舞踊能, Dance Competence), 무용지(舞踊智, Dance Knowledge), 무용심(舞踊心, Dance Disposition)을 제시한다. 무용능은 신체적 영역에 해당하는 능력과 태도로서, 무용의 기본 동작들과 기초 기술을 활용해 배우는 이가 스스로 실천해내는 신체적 능력과 기능적 재능을 의미한다. 무용지는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능력과 태도로서, 무용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명제적 지식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인지적 능력과 지성적 자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무용심이란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용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심성적 태도나 마음의 자질을 의미한다.

연 관람 및 감상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연 관람의 전중후라는 시간적 맥락에서의 경험, 공연장 안팎과 미디어 등 장소와 공간적 맥락에서의 경험, 무용수, 작품내용, 의상, 움직임, 무대 등 감상 대상과 관련한 경험, 발레 문화와 관련한 경험들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세심하게 그들의 경험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발레 감상의 경험과 방식들이 신체적(능), 인지적(지), 정서적(심) 차원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삶에 의미화 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발레 관객의 경험을 삶의 맥락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서사적 접근과 댄스 리터러시 개념의 활용은 발레 관객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간 발레 관객 연구가 보여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으로서, 관객의 경험을 그들의 삶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발레 관객의 경험을 일상과 분리하여 이해했던 기존의 접근 방식을 넘어, 발레 관객 경험의 실제적 모습을 포착하여 관객 경험의 본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의 발레 관객 연구들은 주로 인구통계학적, 사회심리적, 행동적 접근을 통해 관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대규모 관객 집단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공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객의 경험을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 다층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지며 발레 관객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발레 관객 연구에 있어 '서사적 접근'과 '댄스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대안적 접근으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 및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사적 접근을 통해 관객 경험의 맥락적, 총체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단순히 방법론적 전환이 아닌, 발레 관객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확장을 의미한다. Bruner가 강조했듯이, 명제적(과학적) 사고와 서사적 사고는 서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그간 발레 관객 연구가 주로 과학적 접근 방식에 치중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기존의 접근 방식과 함께 서사적 접근의 연구가 균형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댄스리터러시 개념의 활용이 발레 관객 연구에 새로운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특히 최의창(2011)이 제시한 신체적(능), 인지적(지), 정서적(심) 차원의 통합적 접근은 관객 경험 그 자체와 의미를 다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관객의 경험이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객 경험의 총체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발레 관객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그간의 연구들이 주로 공연 시장 활성화라는 실용적 목적에 초점을 두고 관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해 왔다면, 이제는 관객 경험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의미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여전히 실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객들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경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발레단과 공연장 등 예술 단체 및 기관들이 공연을 기획하고 관객을 개발하는 데 있어 더욱 섬세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서사적 접근과 댄스리터러시 개념의 결합은 관객 경험을 삶의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 연구의 축적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관객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경험이 가진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들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관객 경험의 시간적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도 요청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발레 관객 경험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축적은 발레 관객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관객 개개인의 삶에서 발레가 갖는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참고문헌

- 구희영(2015). 관객은 왜 감동하는가? : 발레공연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15(1), 13-28.
- 국립발레단(2024). **2024년 상반기 공연 관객만족도 조사(내부자료)**.
- 김가은, 홍미성(2020). 관객 입장에서 바라본 공연예술로서의 즉흥무용 공연의 공감 요인. **한국무용학회지**, 20(1), 1-20.
- 김만희, 김범기 (2002). 내러티브사고의 과학교육적 함의.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4), 851-861
- 김성용, 민현주(2010). 무용공연 관객성향과 몰입 및 관람가치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9(3), 911-922.
- 김연재(2023). 한국무용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탐색. **한국무용연구**, 41(2), 79-112.
- 김연화, 윤수미(2019). 1인 미디어(YouTube) 무용 콘텐츠를 활용한 관객 유치 및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연구**, 37(2), 73-96.
- 김주희(2024). 온라인 스트리밍 무용공연 관객의 관람태도 특성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94(1), 35-53.
- 김한나, 주수광(2019). 발레공연 관객창출을 위한 마케팅 효과 검증 연구: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5), 303-315.
- 김현남(2008). 무용공연 관객의 몰입경험과 창조성 연구.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지**, 15(3), 223-238.
- 김현숙(2013). 현대무용 공연 관람에 대한 주관성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30(1), 1-15.
- 나보리, 금현섭(2022). 발레공연의 만족과 충성도 연구: 작품과 단체에 대한 충성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62, 1-20.
- 문화체육관광부(2013~2023). **공연예술보고서**.
- 민현주(2022). 댄스 리터러시 논의의 맥락 및 과제.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9(4), 111-122.
- 민형식(2020). **스포츠는 여학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가? : 여학생 운동향유 방식 탐색을 통한 운동소양 함양 방안 모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선희(2023). 무용 공연관람객의 IPA분석을 활용한 공연관람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7(3), 149-158.
- 박성연(2021). **수용미학적 관점으로 본 현대 연극의 '관객성' 연구 : 리처드 셰크스피어의 수행적 관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 박재홍(2007). 발레관객의 특성 이해를 통한 잠재관객 확대방안. **한국무용과학회지**, 14, 1-12.
- 박지연(2024). **발레 연습복 스타일링이 현대 패션스타일에 미친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박현선(2017). **발레 작품에서 의상 핏이 관객의 작품기억, 의상 이미지, 시선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백정희(1999). 관객의 유형과 우리나라 무용관객에 대한 고찰. **대학무용학회**, 26, 185-198.
- 서정환(2023). **공연장 관람요인이 지각된 가치와 관람 후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공극장의 순수예술공연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손혜진(2024). **전통예술공연 관객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 옴니보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예술경영지원센터(2010). **2010 클래식 음악 발레 관람객조사 보고서**.
- 윤지현(2022). '무용 이후의 무용'읽기와 관객되기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86(2), 1-16.
- 이용관, 장구보(2012). 공연관람객 구조 비교를 통해 본 관객개발 방식. **예술경영연구**, 21, 61-89.
- 이은희(2005). **공연예술교육프로그램이 관객참여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지철(2023). 초등학생의 댄스게임 경험과 댄스리터러시 함양. **움직임의 철학**, 31(2), 71-87.
- 이진희, 이상희, 허진무(2020). 진지한 여가로서 성인 발레 참여 경험과 삶의 질. **한국여성체육학회**, 34(20), 65-88.

- 임선영(2022). 기술수용모델(TAM)을 활용한 얼터콘텐츠(Alter-contents) 무용공연 관객의 잠재적 관람행동 예측 : MZ세대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0(3), 233-249.
- 임수진(2015).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승희(2014). 전통예술 공연 시장 확대를 위한 관객 유형화와 관객 유형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4(4), 41-49.
- 장용조(2015). "예술가로서의 관객" 참여문화 조성 연구: PNB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과 발레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31, 1-25.
- 전수진, 최소빈(2020). 한국형 발레의 작품가치가 관람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8(2), 149-163.
- 정다운, 김용호, 문윤지(2022). 무용공연 관람객의 관람동기가 인지된 가치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22(4), 187-196.
- 정재임(2019). 유아의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LMA 무용교육 프로그램 적용사례. *대학무용학회논문집*, 77(6), 107-122.
- 정철현, 황소하(2010). 예술마케팅 기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확대 방안. *서울도시연구*, 11(1), 211-225.
- 조기숙, 차경천(2011). 무용공연에 관한 관객감동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연구*, 29(3), 41-70.
- 조원석(2022). 팬데믹 이후 온라인 무용 공연 활성화를 위한 관객 참여의 다양한 방향 모색.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0(3), 1-20.
- 진주성(2023). *발레는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발레 애호가의 발레 향유 방식과 발레 소양 탐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윤영(2008). 관객성향 분석을 통한 대구지역 무용공연 관객개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7, 197-212.
- 최의창(2010). 감상이 뭐꼬?. *우리체육*, (5), 51-63.
- 최의창(2011). 중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학문적 접근과 서사적 접근. *교육과정평가연구*, 10(2), 349-376.
- 최의창(2018). *스포츠 리터러시*. 서울: 레인보우북스
- 최지수, 이의재(2020). 성인 남성들의 발레 경험에 관한 이야기. *교육문화연구*, 26(1), 711-736.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_무용*. 연구보고서.
- 홍애령(2015). 문화예술교육 무용교육자의 전문성 요소로서 무용소양(Dance Literacy) 함양과정 탐색. *무용역사기록학*, 37, 195-219.
- Abercrombie, N., & Longhurst, B. (1998). *Audiences: A Sociological Theory of Performance and Imagin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Andersson, L. (2017). *Audience Engagement and Ballet*. Stockholm: Stockholm University Press.
- Andreasen, A. R. (1998). *Expanding the Audience for the Performing Arts*, (용호성 역).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전은 1987에 출판)
- Bruner, J. (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cek, L. E. (1998). Developing dance literacy: Integrating motif writing into theme-based children's dance class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69(7), 29-32.
- Dils, A. (2007a). "Moving into dance: Dance appreciation as dance literacy". Chapter 37. in *Springer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in Arts Education*, 569-585.
- Dils, A. (2007b). Why dance literacy?. *Journal of the Canadian Association for Curriculum Studies*, 5(2), 95-113.
- Hong, T. (2000). Developing dance literacy in the postmodern: An approach to curriculum. *Paper presented at Dancing in the Millennium: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Washington DC*. 245-250.
- Jones, E. (2014). "Dance literacy: An embodied phenomenon". In *Literacy in the arts: retheorising learning and teaching*, 111-129.
- Jurbala, P. (2015). What is physical literacy, really? *Quest*, 67(4), 367-383.
- Jussliin, S. (2019). Conceptualizing dance literacy: A critical theoretical perspective on dance in school. *Dance articulated*, 5(1), 24-42.
- Leyva, R. R. (2015). *Dance literacy in the studio: Partnering movement texts and residual texts*.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Modreanu, R.(2017). The Audience of Contemporary Art: Between Influenced and Influencer. *Journal of Media Research*, 10(2), 157-165.

- Nurharini, A., Ratnaningrum, I., Yanuarita Sutikno, P., Ahmadi, F., & Hapsari, I. P. (2019). Dance Literacy As An Expression of Experience and Creativity in Danc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23(4), 994-1004.
- Stebbins, R. A.(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ontreal, Quebec: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Whitehead, M. (2001). The concept of physical literacy. *Europ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 (2), 127-138.
- Whitehead, M. (2010). *Physical literacy: Throughout the lifecourse*. London, UK: Routledge.

ABSTRACT

Exploring Alternative Approaches and Conceptual Frameworks for Understanding Ballet Audiences :

'Narrative Approach' and 'Dance Literacy'

Sunyoung Kwon* Goyang Research Institute

Research on ballet audiences has traditionally been conducted through demographic, socio-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pproaches. While these approaches are valuable for efficientl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large audience groups and providing useful data to promote the performing arts market, they often focus on partial or specific aspects of the ballet audience experience, limit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udience experience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the "narrative approach" and "dance literacy" as complementary alternatives to existing methods. The narrative approach aims to provide a holistic understand audience experiences by contextualizing them within personal lives and cultural narratives. Meanwhile, dance literacy offers a conceptual framework for comprehensively interpreting the multi-layered and complex experiences of ballet audiences. These efforts shift the perspective from viewing ballet audiences as mere consumers of performances or homogeneous crowds to recognizing them as active, individual agents who experience ballet appreciation and enjoyment in uniquely personal ways, enriching their lives through these interaction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ballet audience research to move beyond practical objectives, such as market development, and to pivot toward a deeper exploration of the audience itself.

Key words : dance audience, ballet audience, appreciation of ballet, narrative approach, dance literacy

논문투고일: 2024.12.13

논문심사일: 2025.01.09

심사완료일: 2025.01.23

* Associate Research Fellow,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ety Research